

달아오른 광주·전남 아파트 분양시장 주택 청약통장 덩달아 인기

농협·우리·기업은행 가입자 급증

광주·전남 아파트 분양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청약통장도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다.

27일 농협 광주·전남본부와 우리은행 호남권본부 등에 따르면 올해 광주·전남지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기존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 '만능청약통장'이라고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지난 2009년 5월 출시해 농협, 우리, 기업, 신한, 하나은행 등에서 취급하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에 따르면 전남지역에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5월 말 현재 11만4904계좌, 12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0

만7560계좌, 679억원)보다 7344계좌, 521억원이 급증했다. 계좌수는 7%, 금액은 77% 성장한 수치다. 특히 올해 들어 5072계좌, 202억원이 늘어나는 등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농협 광주본부도 지난해 5월 말 6만3499계좌, 437억원에서 지난해 말 6만5835계좌, 63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5월 말 현재 7만274계좌, 765억원에 달하고 있다. 1년 사이에 계좌수는 10.7%, 금액은 75% 늘어났다.

이같은 증가세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은행 호남권본부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호남지역의 주택청약종합저

축은 14만계좌, 101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전(10만8000계좌, 517억원)보다 3만2000계좌(29.6%)가 늘어난 수치다. 금액으로는 2배(96.1%, 497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기업은행 호남권본부도 지난해 5월 6만5835계좌, 276억원에서 지난해 말 7만1818계좌, 442억원, 올해 5월 말 7만9018계좌, 580억원으로 1년 사이에 각각 20%(1만3180계좌), 110%(304억원) 성장률을 기록했다.

농협 전남본부 관계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국민·민영·임대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광주·전남지역 부동산경기 경기를 반영하는 수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그동안 아

파트 공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매물 풀기현상이 빚어지면서 광주·전남지역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이로 인해 대기 수요자가 늘고 매매·전세가격이 급등, 신규 아파트 분양가와 별 차이가 없자 실수요자들이 분양시장에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청약경쟁률도 급격히 치솟고 있다.

광주의 경우 최근 1년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이전 3년 평균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아졌다.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광주에서 분양한 GS첨단자이, 대방노블랜드, 수안 호반베르디움 등의 아파트 청약률은 평균 3.70대 1로,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평균 청약경쟁률 0.78대 1보다 382% 증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을 이틀 앞둔 27일 광주시 남구 사동 광주경영자총협회 앞에서 '자장면 값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5410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하며 자장면을 먹기 퍼포먼스를 벌였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한·EU FTA 발효 ... 광주·전남 산업

석유제품·타이어·자동차 뜬다

다음달 1일 한·EU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되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석유제품과 타이어, 자동차 등이 뜬 것으로 전망됐다.

2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내놓은 '한·EU FTA로 이룬 품목이 뜬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전체 수출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EU의 주요 수출 시장은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으로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제품과 선박, 냉장고, 합성수지 등이다.

보고서는 다음달 1일 FTA가 발효되면 광주·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석유제품과 타이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화학공업제품 등의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유제품의 경우 작년 기준 4억8800만 달러를 EU에 수출해 최대 3.6% 관세율이 철폐될 경우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EU를 상대로 2억 3000만달러, 1억8000만달러, 1억3000만달러를 각각 수출한 합성수지와 타이어, 자동차 부품 역시 수출품목으로 분류됐다.

이밖에 1억3000만달러를 수출한 자동차와 세탁기, 석유화학 제품, 산업용 장갑 등도 수출 전략품목으로 전망됐다.

또 합성수지와 전자부품, 카스테레오 등과 같은 제품은 수출 유망품목으로 선정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한통운 인수 포스코·CJ '2파전'

롯데 본입찰 참여 안 해

대한통운 인수전이 포스코·삼성SDS 컨소시엄과 CJ그룹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27일 금융권과 관련기업에 따르면 대한통운 매각 중간사들이 이날 본입찰을 마감한 결과 예비입찰에 참여했던 3개 기업 가운데 롯데그룹을 제외한 포스코·삼성SDS 컨소시엄, CJ 등 2개 기업이 본입찰 제안서를 냈다.

포스코와 삼성SDS의 컨소시엄 구성 소식이 알려지면서 입찰 철회를 고심했던 범 삼성가 CJ가 입찰에 뛰어들어 관심을 끌었다.

CJ그룹 관계자는 "마감 직전까지 고심한 끝에 본입찰 참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CJ는 인수 경쟁에 공격적으로 나섰다. 포스코·삼성SDS가 포스코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하고 삼성증권이 이

여파로 CJ와 자본 계약을 철회하면서 본입찰 참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CJ그룹 측은 "CJ와 인수자본 계약을 철회한 삼성증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삼성SDS의 인수전 참여가 독자적 결정이라기보다 삼성그룹 차원의 의사결정으로 보고 있으며, 의도가 무엇인지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포스코는 본입찰을 나흘 앞둔 23일 삼성SDS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자금력과 인수 시너지 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SDS는 매각 자본 가운데 5%를 인수한다는 계획이다.

롯데그룹은 이날 실무자가 관련 서류를 접수처까지 들고왔으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최종 결정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금융터널 등 자회사 분리 매각으로 예비입찰 때와 매각 규모가 많이 바뀌었다"며 "막판까지 치열한 논의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행뉴스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썸머 웨이브 페스티벌'

7월 22·23일 월아이엠 공연

에버랜드의 워터파크 캐리비안베이가 개장 15주년을 맞아 세계 최초로 '썸머 웨이브 페스티벌'이라는 합합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캐리비안베이는 다음달 22·23일 이틀동안 블랙아이드피스(The Black Eyed Peas)의 리더이자 실력파 프로듀서로 알려진 윌리엄(Will I AM)이 헤드라이너로 등장하는 공연을 펼친다. 윌리엄의 첫 국내 단독공연에는 국내 정상급 뮤지션인 Tiger JK, 2PM 등도 참여해 열기를 더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페스티벌은 수상 무대가 들어서며, 공연 내내 파도풀을 가동해 관객들이 파도풀의 물살을 즐기거나 스탠딩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공연예매는 7월 20일부터 주요 예매사이트(인터파크, Yes24, 옥션)에서 가능하며 가격은 8만8000원이다. 이외에 캐리비안베이는 올 신규 어트랙션 도입에 따른 증진을 위해 캡슐형바디슬라이드 '아쿠아루프'를 도입하고, 최강 아이돌 커플인 닉쿤과 빅토리아를 시즌 광고모델로 내세워 젊고 트렌디한 이미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브리지스톤 순천에

재생타이어 공장 준공

세계 1위 타이어 기업 브리지스톤 밴다이 순천에 생산시설을 짓고 브리지스톤 재생타이어를 생산한다. 국내 5번째 프랜차이즈 생산시설이다.

브리지스톤타이어의 재생타이어 사업부인 브리지스톤 밴다는 27일 순천시 서면 동산리에 프랜차이즈 생산시설인 '대영-밴다'를 준공했다고 밝혔다.

대영-밴다는 현지 기업인 대영산업(대표이사 김재철)이 8억여 원을 투자했으며 브리지스톤 밴다는 원재료, 생산기술, 기술교육 일체를 제공한다. 대영-밴다는 하루 22개에서 최대 88개까지 트럭·버스를 재생타이어 생산 능력을 갖췄다.

브리지스톤 밴다는 대영-밴다를 순천, 여수, 광양, 목포 등 호남지역의 생산 및 판매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은행 지역발전본부 신설

조직 개편안 발표

광주은행이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지역발전본부 신설과 지역개발 금융팀, 홍보실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한 본부 조직 개편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특징은 지역발

작 영업 강화와 사회공헌활동 확대를 위해 전담본부인 지역발전본부를 신설한다.

신설된 지역발전본부에는 사회공헌사무국, 기관사업부, 지역개발금융팀을 뒤 각각 사회공헌활동, 지역금융 및 자치단체 지원, 지역개발사업, 사회공헌활동 등의 업무를 추진

한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광주은행은 8본부(6영업본부) 28개 부서 체제에서 총 9본부(6영업본부) 30개 부서 체제로 조직이 정비된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그동안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그동안 본격적인 지역개발사업과 산단개발 사업을 추진해 영업력을 대폭 확충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롯데마트 나주입점 반발

건축허가 신청 ... 상인들 "끝까지 투쟁"

롯데마트가 오는 11월 나주점 입점 을 위해 최근 건축허가신청을 나주시에 접수하면서 지역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7일 나주시에 따르면 롯데마트 나주점 개발 시행사인 C신탁개발은 송월동 실내체육관과 유림회관 중간 부근 상업용지에 입점을 확정짓고 지난 25일 인터넷으로 건축허가신청서를 나주시에 접수했다. C신탁개발이 건

물 준공을 마친 롯데마트는 장기 임대 방식으로 입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나주시상가번영회 등 지역 상인들은 향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번영회 관계자는 "영세 상인들의 상권이 죽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끝까지 투쟁해 입점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코스피지수	2070.29 (-20.52)
코스닥지수	475.43 (+1.77)
금리 (국고채 3년)	3.72% (+0.01)
원·달러 환율	1085.60원 (+6.8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고침=본보 27일자 8면 로또복권 안내 중 476회차는 447회차의 잘못된 기수에 바로 잡습니다.

SINCE 198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서울 종로점 OPEN

[국제보청기]

종로5가역 4번출입구 1층(지하철 1호선)

문의전화 : 02)765-9940

찾아오시는 길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이연안과 옆)

충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중앙시장 앞)

목포점 061-262-9200

www.kjhr.com